

아오자이가 말하는 항쟁의 역사 『사이공의 흰옷』

사이공의 흰옷이라는 책이 있었다. 그 책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어느 청년노동자의 죽음』 등과 더불어 격동의 저 80년대 내내 운동권의 교양도서 목록에서 늘 앞자리를 차지했다.

미국의 개입으로 인도차이나반도에 새로운 확전의 징후들이 나타날 무렵인 1960년대 초반 사이공의 평범한 여학생 홍이 광기의 역사에 휘말리는 과정을 추적하는 그 책을 읽다보면, 베트남과 한국이라는 물리적 거리와 60년대와 80년대라는 시대적 간격을 뛰어넘는 진한 동질성을 느끼게 마련이었다. 이와 함께 그 책이 몇십쇄 판을 거듭한 배경에는 여주인공 홍과 남주인공 호앙의 그야말로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는 절절한 사랑도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사이공의 흰옷』을 읽는가.

이제 서점에서 그 책을 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대형 서점 창고 구석에서 어쩌다 켜켜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숨어있는 책을 발견할 수는 있어도,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벗하며 자라난 오늘의 청년세대에게 더 이상 교양도서 목록으로 권해지지 않는다. 인터넷 공간을 밤낮없이 누비는 그들에게는 홍의 세계야말로 오



히려 낯선 사이버 세계, 즉 가상현실 일 뿐이다.

그러나 그 책을 처음 접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이공의 흰옷』에 대한 내 독후감은 여전히 강렬하다.

흰 아오자이에 흑진주같이 빛나는 머리카락을 흘날리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학생.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포도에 구르는 나뭇잎만 보아도 닭똥 같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다는 나이의 홍. 그러나 그녀의 가방 안에는 빼라며 해방전선의 신문이 들어있다.

홍은 그야말로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평범하다는 것은, 항불전쟁 때 비밀 서류를 나르던 아버지가 용병에게 잡혀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나이 어린 딸이 발길질에 걸어차여 강으로 떨어지고, 섬에 숨어 있던 숙부가 사살 당하고, 그러자 숙모는 강간까지 당한 뒤 살해되고, 또 다른 숙부는 기요틴에서 생을 마감하며, 행상을 하던 어머니는 시장에서 독재의 주구에게 고기 상자를 뒤집어쓰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했다.

홍이 투쟁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다시 보였다. 아버지가 신병의 고통 속에

서 내뿜은 기침 소리 하나에조차도 우리 베트남의 역사가 스미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어머니의 초라한 고기 상자나, 삼촌이 내 손을 끌고 구경시켜준 사이공의 그늘과 양지, 공부에만 열중하리라 마음먹었던 사이공의 초기 생활, 여러 친구들, 붕 따우의 캠프 -- 그 모든 것에 스미어 있는 나의 조국 베트남의 현실을 깨달을 때 나는 눈이 띄어가는 기쁨에 몸을 떨었다.”

홍은 동창생이며 연인인 호앙의 추천으로 항전구에 들어가 교육도 받고 나온다. 그러다가 마침내 체포되어 사이공 동물원 지하에 있는 감옥으로 끌려가 지독한 고문을 당한다. 홍은 적들에게 유리한 진술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초주검이 되어 다시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머리핀으로 벽에 글을 새긴다.

“이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이 흰옷처럼/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오직 맑게 살려 했던 나/ 이제 이 비참한 수렁 속에 빠뜨려졌으나/ 나의 이 흰옷 더욱 희게/ 언제까지나.”

사이공의 흰옷이란 결국 부패한 정권에 대한 열렬한 존재 선언인 것이다.

호앙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길을 걷는다. 그들에게 체포와 고문, 투옥은 당연한 해방전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당연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부패한 정권에 대한 열렬한 존재 선언

소설을 쓴 작가 응옌 반 붕은 베트남 전쟁 당시 중군 작가였다. 그는 남베트남 전역을 돌며 해방전사들의 이야기를 취재 중 1969년 5월 경 소설 속 여주인공인 홍, 즉 응옌 티 쩌우를 만난다. 그때 이미 남베트남 해방전사들 사이에서도 활동을 인정받고 있던 쩌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작가의 제의를 거절한다. 다른 이들도

도 묵묵히 조국해방전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인가 싶어서가 첫 번째 이유였고, 이름이 알려지면 항전구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게 두 번째 이유였다. 쩌우는 사이공 시에 들어가 계속 활동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그것이 자신만의 개인적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트남 학생운동의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이라는 저명한 혁명작가 또 호의 설득에 마침내 응옌 반 붕의 제의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원제 『아오짱』(아오는 옷, 짱은 희다는 뜻)은 이렇게 해서 북베트남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책이 나온 뒤 홍과 호앙이 보여준 투쟁과 사랑은 무수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었고,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전국에서 헤아릴 수도 없는 격려의 편지가 쇄도하게 된다.

소설은 홍이 감옥에서 나와 다시 구쩌 항전구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그 후 홍은 남베트남 청년학생영웅전사 대표단 자격으로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고, 소련, 중국, 헝가리,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를 돌며 베트남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호치민 주석을 만나보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지옥에 가까운 고문을 받고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으리라 생각했을 때 그분이 웃으며 나를 칭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을 극복했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겼어요. 1969년 5월 19일 감옥에서 나온 이후 나는 호치민 주석을 네 번 정도 만날 수 있었어요. 주석은 저를 보자 ‘쩌우! 너 살아 있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베트남 인민들은 그를 호아저씨라 부르며 아주 친근하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들은 모든 생각과 노동과 삶과 투쟁에서 호치민 주석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은 언제까지나 내 가슴속에 살아계실 겁니다.”¹⁾



가운데 꽃을 들고 있는 짜우 여사와 그 옆에서 있는 레 홍 트와 필자

내가 응옌 티 짜우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로부터 벌써 6,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 그녀는 호치민시 어린이보호위원회에서 소장으로 일하다가 독립하여 호치민시 어린이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수가 적은 대신 입가에는 늘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나는 저 작은 체구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궁금했다.

“생애는 세 번 중요한 때가 있다. 입당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가 그것이다.”

전기고문, 물고문을 비롯하여 온갖 잔악한 고문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 때, 홍은 선배 당원의 그 말만을 떠올렸다. 그것은 곧 의연한 죽음이야말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민중을 겁간하는 남베트남 군사정권에 대한 가장 통렬한 저항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 결국 그녀는 모진 고문들을 이겨냈고, 악명 높은 꼰다우 섬 감옥에서 무려 13년을 지낸

호앙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마르고 왜소한 몸의 호앙, 즉 레 홍 뜨는 한때 적국이던 나라에서 온 내게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배부르고 따뜻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사이공의 흰옷』은 실록소설

그때 베트남 현지에서는 『사이공의 흰옷』을 영화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제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모래시계』의 최민수는 몰라도 『의가형제』의 장동건은 ‘미치도록’ 좋아하던 베트남 신세대들, 이제는 아예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거의 같은 속도로 보고 자라는 베트남 신세대들에게 과연 그 영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리고 만일 그 영화가 어떤 이유로든 성공한다면, 그건 닷컴시대의 체 게바라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성공한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로서 성공했다는 뜻일까.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겠다 싶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청춘을 바친 이의 이미지라면 없는 것보다야 백 번 천 번 낫지 않겠는가.

체의 평전을 낸 출판사의 광고 문안이 기막혔다.

— 인간은 꿈의 세계로 나아간다.

나는 폭풍 같던 내 젊은 시절을 휘어잡았던 책 『사이공의 흰옷』의 두 주인공에게서도 이미 그런, 어떤 정략을 쓰더라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미지를 읽어냈는지 모르겠다.

1) 「응우옌 티 짜우와 사이공의 흰옷」, 『말』, 1994년 6월호

김남일 (소설가)

- 1957년 경기 수원 출생 · 1983년 <우리 세대의 문화>에 단편 『배리』로 등단
- 장편소설 『청년일기』, 『국경』(전 7권), 작품집 『일과 밥과 자유』 『천하무적』 『세상의 어떤 아침』, 장편동화 『떠돌이 꽃의 여행』과 평전 『김상진, 을 집필
-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국장, 계간 『실천문학』 주간,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의 회장 역임